문자문화의 재매개 현상에 대한 고찰

함현*
*청운대학교 방송영상학과
e-mail: poparts@chungwoon.ac.kr

A study on the Remediation of Text Culture

Hyun Hham*
*Dept.of Broadcasting & Digital Media, Chungwoon.ac.kr

요 약

본 논문은 인류문화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자문화의 출현과 더불어 변천의 과정을 재매개의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결국 문화형성 요인에 있어서 문자의 출현은 인류의 역사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시각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더불어 문자의 출현에서부터 디지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앞선 매체의 재매개를 통해서 발전되고 있는 점들은 괄목할만한 대상이다.

1. 서론

인류문화의 시작과 원동력은 유인원의 진화론적인 흐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앙드레 르루와 구랑의 말을 빌리자면, 직립인간은 앞발이 손으로 진화되면서 도구를 제작하는 과정을 구축하였고, 새로운 감각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감각은 '촉각'과 '시각'의 확립을 통해 일상의 욕구를 충족하는 계기를 형성하고, 인간의 총체적인 감각기관과 연관된 인류 문화 형성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현 시점에서 문화는 인간들이 이용하는 독특한 적응체계를 서술하기 위해 인류학자들이 개발한 개념이다. 문화는 개인들과 사회집단들의 선원들에 이해되고 개인과 집단의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한 사회의 신념 및 행동의 전통적 체계라고 부를 수 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문화는 인간이 상징을 사용하여 만드는 인지적 및 규범적 체계로서 인간행동을 규제하는 외부환경이다. 문화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지만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세대를 거쳐 전달되며 그 문화에 속한 구성원들의 의식에 내면화되어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2].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볼 때 인류문화형성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기반을 조성한 것이 문자의 발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인류문화의 탄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자문화의 역사·문화적 형성과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진화의 과정을 재매개의 이론에 의해 고찰하고자 한다.

2. 문자문화의 출현과 발전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캔버스'는 바위였으며, 인류는 사피엔스의 사고력을 갖추게 된 이후부터 바위나 동굴의 벽 내부에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기 시작했다 [3]. 이러한 특성은 돌로 만들어진 도구를 사용하고, 다양한 손과 팔의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대의 문자 발명은 다양한 매체의 기술적 발전을 통해 글쓰기 공간의 개념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즉 문자의 형식과 물질적 속성에 따른 다양한 표기 방법은 진화를 거듭하고, 다양한 시각체계의 도식과정을 형성하였다. 또한 문자의 발명은 인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고안된 인위적인 창조물로 물질성과 형태적인 구조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시각의 개념을 형성한 인류 문화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자의 발명은 구술문화시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즉 대량생산체제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종이와 인쇄

술의 발전, 그리고 책의 출현은 문자의 혁명을 가져오게 했다.

문자의 출현은 시각과 시각성의 문제로 발전되었다. 문자 시스템의 확립을 통해 책의 페이지 구성과 형태는 글쓰기의 도식과정, 즉 인쇄 공간의 시각체계의 구조를 확립하게 된다. 또한 글쓰기의 형식과 구성은 공간의 개념으로 확장되는 건축양식과도 같은 유사한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글쓰기의 역사적인 맥락으로 살펴볼 때, 타이포그래피의 기술발전 과정에서부터 하이퍼텍스트의 시스템과 웹을 기반으로 한 컴퓨터 글쓰기의 매체적 기술적 발전의 변화는 상호매체성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볼터는 “재매개”의 변화라고 논의하고 있다. 재매개라는 말 속에는 매체들이 앞선 매체를 대체하면서 그 매체의 글쓰기 특징들을 빌려와서 재조직하며, 그것들의 문화적 공간을 새롭게 형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4] .

3. 문자문화의 시·공간적 개념: 볼터의 재매개

글쓰기 공간에 대한 볼터의 사유 방식은 글자와 이미지의 밀접한 연관성, 즉 상호매체성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 시대의 웹과 멀티미디어의 기술발전에 따른 글쓰기를 문자표현과 시각적 표현방식 간의 중요성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항은 중세 시대의 필사본에서도 유사점을 살펴 볼 수 있다. 즉 필사본의 시각적 표현과 텍스트의 문자표현은 시각적 풍요로움을 제공하고, 규격화 및 이미지와 텍스트의 여백과 공간이 활용되었다는 점은 현대 인쇄매체의 글쓰기 공간의 활용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글쓰기의 시각적, 개념적 공간의 활용이 물질적 또는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현상이라는 볼터의 사상의 특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먼저 볼터는 디지털 글쓰기에서의 낡은 것과 새로운 것 [5] 의 관점에서 저자들이나 디자이너들은 구텐베르크 발명 이후 인쇄술의 서비스가 전자 테크놀로지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 말에 대한 글쓰기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보게 되면, 필사본의 시대는 인쇄 시대를 예고하고,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는 매체의 변화, 즉 전자 테크놀로지의 산물들에 의한 시대를 예고할 뿐, 글쓰기의 기술적인 측면은 앞선 기술들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공통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글쓰기의 혁명은 단순한 식자성에 의한 기술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글쓰기 즉, 키네틱 타이포그래픽은 새로운 ‘촉각’과 ‘감각’의 끊임없는 창발을 통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었던 문자성에 관한 관념을 해체하고,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차원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진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볼터는 서구 글쓰기 역사의 변화에 대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좀 더 깊은 영향을 준 재매개 중의 하나로 꼽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글쓰기와 읽기의 “모양과 느낌”을 바꾸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6] . 결국 글쓰기의 “모양과 느낌”의 변화는 텍스트가 문자성에 의한 전달방식이 아니라, 이미지로 재생산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시각적 주체로 발전되고, 새로운 시각의 매커니즘을 형성하는 것이다. 결국 텍스트의 이미지화 현상은 기존의 문자성에서 이미지로 교환되는 새로운 시각과 시각성을 구축하게 된다.

그렇다면 디지털 글쓰기는 어떤 시각과 시각성을 표출하는가? 이에 대해 핼 포스터는 시각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이며, 시각성은 신체와 정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시각과 시각성이 서로 동일한 것이 아니며, 이 경우 두 개념의 차이에 대해 시각적인 것 내에서의 어떤 차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차이란 시선의 매커니즘과 시선의 역사적인 테크닉들 사이의 차이이며, 시각의 데이터들과 시각의 담론적 규정들 사이의 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7] . 그렇다면 디지털 글쓰기의 시작과 기술 발전 과정이 재매개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과정은 텍스트가 이미지 과정의 새로운 시각성을 구축하는 현상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존의 텍스트가 갖고 있는 문자성의 시선에 집중된 시각의 데이터인 문자와 텍스트가 이미지로 구축된 텍스트이미지는 보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담론 구성이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구축하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글쓰기의 특징은 텍스트와 이미지의 혼종성으로 드러나는 새로운 감각의 출현이다. 디지털 글쓰기 공간의 비선형적인 구조의 확장에 따른 기존의 인쇄매체의 규칙적인(선형구조) 글쓰기 공간의 활용에 비해, 이미지와 텍스트가 비 규칙적인(비선형 구조) 공간적 활용을 통해 봉합된 하나의 이미지로 새로운 시각적 주체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하이퍼리얼리티 시대

의 다양한 매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4. 결론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글쓰기에 대한 볼터의 견해는 글로 된 생각들을 시각적인 공간에 배치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테크놀로지라고 명명하고 있다 [8] .또한 글을 쓰기 위한 표면의 물질성과 표시를 하는 도구를 사용한 글쓰기에서부터 컴퓨터의 자판을 통해서 글을 쓰는 작업의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쓰는 것의 기술과 방법에 따른 글쓰기 개념의 기본적인 본질은 해체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 공간의 활용은 급속한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새로운 도구들의 탄생으로 글쓰기의 기술적, 문화적 특징들이 다변화하고 있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보면, 문자문화는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매체중의 하나이다. 고대 필사본의 시대에서부터 컴퓨터 글쓰기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다양한 영상매체에 이르기까지 문자문화는 새로운 방법의 시각적 구성형식을 통해서 재매개되고, 발전되고 있는 사항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브라이언 페이건 Brian M. Frgan, 「World Prehistory : A Brief Introduction」, 이의준 옮김(2000), 「인류의 선사문화: 선사시대 인류의 문화와 문명」, 도서출판 사회비평론, p.34.

[2] Lotman, Yuri M(1994), 김수환 옮김(2008), 『기호계: 문화연구와 문화기호학』, 문학과지성사, p.63

[3] 엠마누엘 아나티, 이승재 옮김(2008), 「예술의 기원」, 바다 출판사, p.28.

[4] 제이 데이비드 볼터, 김익현 옮김(2010), 『글쓰기의 공간』, 커뮤니케이션북스, p.36.

[5] 볼터, 위의책, p.11.

[6] 볼터, 위의책, p.36.

[7] 핼 포스터, 최연희 옮김(2004), 『시각과 시각성』, 경성대학교 출판부, p.7.

[8] 볼터, 위의책, p.23.